

6월 Market Index			
↑ 코스피	5584.87	↑ 코스닥	1154.67
	(+0.97)		(+38.26)
↑ 금리 (연이자율)	3.227	↑ 환율 (원/달러)	1481.60
	(+0.038)		(+13.50)

# metro® 경제

현대차그룹  
로보택시  
상용화 순항  
02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3월 9일 월요일

## 국제유가 100달러 눈앞... 물가폭등·경기후퇴 'S 공포'

(스태그플레이션)

### 미-이란 전쟁, 韓 경제 영향

현대경제연구, 단계별 시나리오 제시  
유가 100달러 시, 韓 성장률 0.3%p ↓  
150달러 넘으면 최소 0.8%p 하락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여파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부각되는 모습이다. 이는 고물가와 경기 후퇴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례적 현상이다. 1970년대 후반 제2차 석유파동 때 주요국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뒷걸음질했는데, 물가는 내려앉지 않고 오히려 갑절로 뛴 바 있다.

통상 경기가 개선세를 보일 때는 수요 증가에 따라 물가가 오르게 마련이다. 반대로 경기가 위축되면 수요 감소에 의해 물가는 하락한다. <관련기사 4면> 그러나 1979년에는 달랐다. 이란-이라크 전쟁 등에 의해 원유 공급이 줄어 국제유가가 뛰면서 전 세계 소비자물가를 크게 밀어 올렸다. 물가 급등은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가계의 구매력 위축, 실업자 양산 등의 문제를 야기했고 결국 각국 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다.

지금도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오만만으로 이어지는 수송 뱃길이 사실상 막히면서 중동산 석유의 세계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

라를 비롯해 중국, 아시아 주요국 등이 이 같은 서아시아산 의존도가 높다.

8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중동산 두바이유 선물(올해 3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가 코앞이다. 지난 6일(현지 시간) 기준 99.14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하루 새 9.83달러(11.01%)나 뛰었다.

북해산브렌트유(5월 인도분)와 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4월 인도분) 역시 같은 날 90달러대에서 거래를 마쳤다. WTI 선물의 경우 미국-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기습 직전인 2월 중하순경 배럴당 65달러 안팎에 머물던 상황이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펴낸 '미-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향후 예상 시나리오를 유가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우선 중동사태 장기화로 수개월간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 경우 경제성장률이 최소 0.3%포인트(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p 오를 것으로 봤다.

미국 또는 연합군이 지상군을 투입하거나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는 이른바 '오일 쇼크' 시나리오하에서는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성장률 최소 -0.8%p에 소비자물



### 기름값 3주째 상승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3.3원으로 전날보다 3.9원 올랐다.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15.37원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가 상승률 +2.9%p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연구본부장은 "현재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는 경기가 아직 바닥을 안 찍었고 회복 국면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 M-커버스토리

## 5대 손보사 車보험 연간 4585억 '적자'

### 손해율 평균 88.5% '급증'

손해율 평균 88.5% '급증' 주요 손보사, 車보험료 1%대 인상 갱신 물리는 3~4월 소비자 체감 업계, 보험료·할인체계 손질 검토

개인용 자동차보험료가 2월 책임개시 계약부터 평균 1.3~1.4% 인상됐지만 자동차보험 손해는 적자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5년 대형 5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는 4585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1월 손해율도 평균 88.5% 수준으로 90% 안팎에 근접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결제일이 아니라 보험 시작일(책임개시일) 기준으로 적용돼 갱신 수요가 물리는 3~4월에 소비자 체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주요 손보사가 2월 중순 책임개시 계약부터 1.3~1.4%를 반영하면서 갱신 계약이 돌아오는 운전자부터 보험료가 순차적으로 오른다.

### <관련기사 3면>

자동차보험료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하 흐름이 이어진 뒤 올해 5년 만에 '인상 전환'했다. 업계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1%대로 낮췄지만 손해율 반등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이 부담으로 꼽힌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라, 보험료 변동이 곧바로 체감 지출로 연결된다.

비용 압력은 여전하다. 손보업계는 1월 대형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5.6~94.0% 범위까지 벌어졌다고 집계했다. 업계가 통상 손익분기점으로 보는 손해율(사업비 포함) 수준을 웃도는 구간이 길어질수록, 요율을 소폭 조정해도 손익 개선이 더디다는 설명이다. 사고 건수보다 '사고 1건당 평균 수리비'가 커지는 흐름과 휴업손해 산정에 쓰이는 노임단가 상승도 비용 요인으로 거론된다.

2025년에는 자동차보험 적자 전환이 손보사 전반의 손익 감소(전년 대비 11.5%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손보사들은 보험료 조정과 함께 무사고·운전경력 인정 확대 등 할인 체계를 손질해 부담을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CPI) 구성 항목으로 분류돼 보험료 조정이 곧바로 민생·물가 논쟁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변수다. 금융당국은 CPI 내 자동차보험료 가중치가 3.7로 택시비(3.2), 도시철도료(2.2)보다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물가와 실적이 동시에 걸린 의무보험"이라며 "보험료 논쟁을 줄이려면 치료·수리 비용을 건드리는 제도 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 '역대급 호재' 삼성전자... 노조파업 발목

###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오늘부터 정의행위 찬반투표 과반 천성시 단계적 투쟁 계획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확대라는 역대급 호재 속에서 노조 파업이라는 초대형 변수에 직면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달 업계 최초로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규격인 HBM4 양산 출하에 나섰다. 이 제품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루빈'에 적용될 예정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요 공급사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 H200칩 생산을 중단하고 베라루빈을 중심으로 차세대 AI 반도체 전략을 재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전자의 수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베라루빈 조기 출시 등에 따른 초특급 수혜 기대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노조의 파업 사태라는 변수에 직면했다.

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는 오는 9일부터 정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해 정의권을 확보할 경우 4월 23일에 평택사업장에서 전 조합원 집회를 열고, 이후 상황에 따라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공동투쟁본부에 참여한 노조는 초기 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동조조합(전삼노), 삼성전자동조동행 등이다. 이미 임직원의 절반 이상이 가입해 사실상 과반 노조가 된 상황이다. 특히 조합원 대부분인 약 5만명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소속으로 알려졌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또 향후 투자 여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

다. 반도체 산업은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가 적기에 이뤄져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파업 시 회사는 10조원의 손실을 보지만 직원들의 손해는 4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에서는 노조가 직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강요하며 노사 갈등을 지나치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 5일 유튜브 방송에서 "총파업 기간 동안 집행부는 평택사업장을 중심으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회사에 협조하며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향후 전배나 인사 조치 협의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측은 주택대부 최대 5억 원 지원과 임금 6.2% 인상안 등을 노조측에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성과급 산정 기준 투명화와 상한 폐지, 임금 인상률 7% 등을 요구하며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9일 중동 상황 관련 '경제·물가 점검' 비상경제회의 주재  
▲정청래 "검찰개혁, 이정부·민주당 상징...입법권 당에 있어 조율 가능" /사진 뉴시스

▲국힘 "1주택 실수요자까지 증세 타깃 삼는 구상은 탁상행정"  
▲조국혁신당 "尹이어도 코스피 6000?...한동훈, 국민 정서 모르나"

▲이준석 "부정선거론자 교정 위한 교육사이트 개설...이수종도 발급"  
▲조현 외교부 장관, "중동서 우리 국민 150여명...귀국 총력 대응"